

제주119 하루 4~5건꼴 코로나19 출동

코로나19 확진자 나온 20일 이후 관련 신고 급증 소방본부 증상자 이송위해 전담구급차 7대 운영

제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이 발생한 가운데 관련 신고가 증가하면서 119구급대 출동 건수도 늘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27일 오전 9시 기준)까지 한달간 코로나19 관련 신고로 전담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130건에 이른다.

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1월 마지막 주에는 3건, 2월 첫째 주 6건, 둘째 주 13건, 셋째 주 40건, 그리고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넷째 주부터 현재까지 68건 등 총 1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0일 이후로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전담 구급차 4대를 운영해 오던 것을 지난 20일부터 총 7대로 제주전역에 대한 특별전담 이송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담구급대에 탑승하는 구급대원은 전신보호복과 5가지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며, 구급차 내부는 특수필름으로 도배하는 '킵핑'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환자 이송을 마치고 복귀하면 착용했던 보호장비 폐기물처리, 출동 구급대원 소독을 실시하는 등 이 모든 활동에만 4~5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신고

가 접수되면 발열체크, 여행력 등을 조사한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전담구급대가 출동하게 되는데,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들이 화를 내며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일반환자로 분류돼 일반 구급차가 출동했다가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되면서 구급차·구급대원 소독·격리료 입구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고 자세하게 대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발열·기침 신천지 신도 36명중 30명 '음성' 6명 코로나19 검사중... 도, 연락두절 12명 소재파악 나서

제주 신천지 교인 646명 중 36명이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된 가운데 3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신천지 교인 36명 가운데 30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라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6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과 관계없이 2주 동안 자가격리가 이뤄진다. 무증상자 가운데 2명은 최근 대구·경북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6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도내 신천지 교인 646명 가운데 603명에 대한 전화문진을 완료했다. 나머지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결번인 경우였다.

도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은 12명에 대해서 제주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제공받은 명단이 '제주 1차'라고 표시돼 있는 점, 명부상 지역별 인구비율이 실제 지역별 인구비율과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명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신천지 교인 중에 고위험직업군을 가진 인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확보된 명단 646명 가운데 남성은 221명, 여성이 425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581명, 서귀포시 65명이었다. 송은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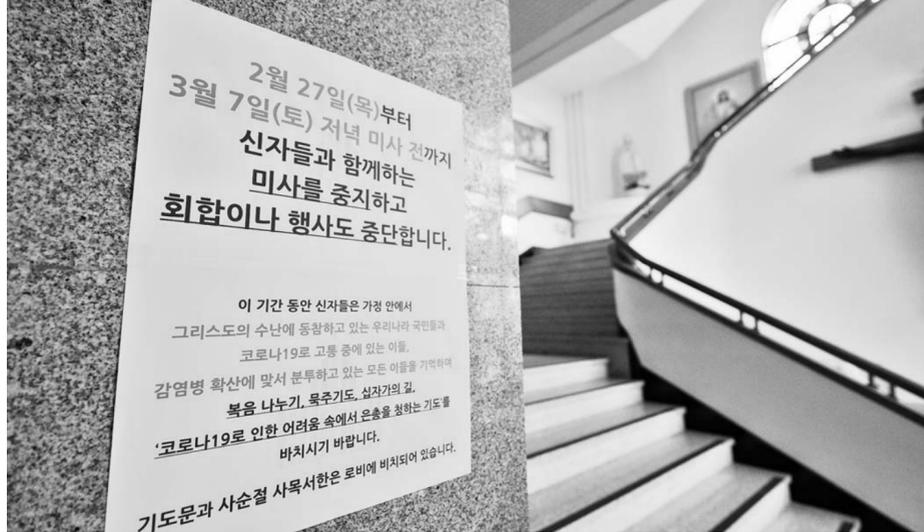
공공도서관 휴관 연장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제주지역 공공도서관 임시휴관이 무기한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코로나19 관련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 유지 및 타지역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와 도내 신천지 교인 유증상자 발견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1일까지였던 임시휴관이 별도 통지시까지 무기한 연장된다. 대상은 도내 산하 15개 공공도서관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다중이용 시설로 닫힌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이용자 안전을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미사 중단한 제주중앙성당 27일부터 천주교제주교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사 중단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제주중앙성당에 미사 중단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일선학교 코로나19 격리실 확보 '진땀'

교육청 "보건실 제외해 별도 관찰실 마련하라" 공문

학교 "여유교실 없는데..."

정부의 개학 연기로 오는 3월 9일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제주지역 학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시적 관찰실(격리실)' 확보에 진땀을 빼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중고에 '일시적 관찰실'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개학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학교 내에서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발견될 경우 일시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집단 감염 우려를 막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다른 학생들의 접근이 드물고 환기가 쉬운 곳을 일시적 관찰실로 지정할 것을 학교에 권고했다. 한 번에 여러 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넓은 공간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또한 학교 내 보건실을 일시적 관찰실로 지정할 경우 다른 학생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공간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새 학기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일시적 관찰실 마련이 필수적이지만 여유 교실이 없는 학교에선 고심이 깊다. 한정된 공간에서 지정 원형을 충족하는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이에 일부 학교에선 상담실, 교장실 등을 비우며 장소 마련

에 나서고 있다. 광명초 관계자는 "학교 교실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보건실 바로 옆 교장실을 일시적 관찰실로 지정했다"고 했고, 고산초 관계자는 "여유 공간이 없어 특별실이나 방과후교실을 활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는 급한대로 보건실을 일시적 관찰실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도내 학교 9곳(초등학교 7곳, 특수학교 2곳)에 확인한 결과 이 중 2곳이 보건실에 임시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일반 교실과 특별교실이 모두 찌여져 있어, 보건실을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고, 한 특수학교 관계자도 "여유 공간이 없어 임시로 보건실로 정하고 시설 공사가 끝나면 다른 공간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들 방문이 잦은 보건실을 일시적 관찰실로 쓸 경우 사실상 격리가 어렵고, 다른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행 사항을 학교에 안내했고,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모든 학교를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일시적 관찰실 지정에 포함 사항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대병원·한라병원, 국민안심병원 지정

코로나19 종식까지 한시적... 호흡기환자·나머지 환자 분리 진료

제주지역에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이 생겼다.

정부는 27일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와 나머지 환자들을 서로 분리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비

호흡기 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국민안심병원 제도를 마련했다.

국민안심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등 방문객들은 모두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호흡기 증상과 발열, 의사환자 여부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병원은 이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이용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력을 확인한다.

방문객 통제도 엄격해 환자와 보호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방문은 기본적으로 전면 통제되며 환자 보호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1명만 출입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뉘는데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은 모두 B타입에 해당한다.

A타입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제외한 일반 호흡기 환자들만 진료

하기 위해 분리된 공간과 인력을 갖춘 곳이다. B타입은 A타입에 더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1차적으로 진단하는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질환자 입원 시설까지 갖춘 곳을 말한다.

제주대병원은 병원 내 3층에 호흡기 환자 전용 병동을 꾸려 오는 3월 2일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호흡기 환자 전용 병동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만 입원할 수 있다.

한라병원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호흡기 환자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기존 환자들은 조만간 병원 내 다른 병동으로 옮겨진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제주출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연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억제제, 광합성지원제품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잡초의 경감

높은 저장성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페르카

강력한 라임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